제각각 축제정책, 한곳으로… '서울대표 축제' 만든다

서울시 축제위원회 전격 가동
민간·공무원 등 20여명 규모
올 축제 13건에 예산 83억원

한강 물싸움 축제. /서울시

서울시가 '축제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축제정책과 비전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서울시 축제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를 전격 가동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축제분야 민간전문가, 시 공무원, 시의원 등 20명 내외로 된 '축제위원회'를 꾸려 이달 중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오는 9월 '서울시 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서울시 축제는 각 실·본부·국별로 독자적으로 추진돼 콘텐츠와 시기, 장소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고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에서 직접 개최하거나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자치구, 민간 축제는 많지만 국내·외에서 서울을 대표하고 상징할만한 축제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축제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 축제정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중요한 사항을 심의·협의하는 법정 자문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관련 조례에 축제위원회 조항을 포함시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결위원회로 위상을 제고할 방침이다.

축제위원회는 ▲서울시 축제정책의 수립·변경 ▲자치구·민간 축제의 지원·육성 방안 마련 ▲서울시(투자출연기관 포함)에서 추진하는 축제 신설, 통합, 조정, 권고 등의 사항 ▲서울 대표축제 선정 및 관광 자원화 방안 마련 ▲서울 브랜드 음악축제 개발·개최 관련 사항 ▲서울시 축제평가 등을 맡는다.

시는 "시정 4개년 계획 핵심과제인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조성'을 달성하기 위한 '브랜드 음악축제 개발·개최 사업'을 리드해 줄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축제위원회는 위원장 2명(행정 1부시장, 민간전문가 위원), 서울시 소속 당연직 위원 3명(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 서울연구원 소속 축제분야 연구원 1명, 축제감독·대학교수 등 민간 전문가 4~7명을 포함, 약 20명으로 꾸려진다.

올해 시는 83억원의 예산을 투입, 13건의 축제를 연다. 자치구와 민간 축제(274건)에는 77억원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시의 분산 돼 있는 축제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과 '축제도시 서울 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축제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아파트 경비실 900곳에 '태양광 발전소'

서울시, 민간업체 손잡고 무료 설치
벽걸이 에어컨 하루 4시간 가동수준

경비실에 설치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서울시

서울시는 민간업체와 손잡고 아파트 경비실 900곳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무료로 설치해준다고 2일 밝혔다.

경비실 1곳당 2기씩 태양광 모듈 1800장을 설치한다. 모듈 한 기의 발전용량은 300~305W다.

시는 지난해 350개 아파트 단지의 경비실 548곳에 태양광 모듈 1052장을 설치했다. 올해에는 세대수 제한을 없애 지원 대상을 늘렸다.

이번에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체는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업체인 ㈜유엔알, ㈜경동솔라에너지, 이솔라텍 등 29곳 ▲㈜이엠테크, 현대에너지솔루션㈜ 등 모듈제조사 2곳 ▲㈜파워넷, 한솔테크닉스㈜ 등 인버터제조사 2곳이다.

모듈·인버터 제조사는 기존 공급단가보다 15~30% 인하된 가격으로 태양광 보급업체에 자재를 공급한다. 보급업체는 자재를 구입해 설치 인력과 기술을 제공한다. 시는 태양광 보급업체에 일반세대와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경비실의 면적은 2~6평 내외로 300W급 미니 태양광 2기를 설치하면 한달에 60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벽걸이 에어컨은 하루 4시간, 선풍기는 종일 돌릴 수 있는 수준이다.

시는 5일까지 각 자치구를 통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을 받는다. 시는 최종 선정된 경비실에 10일부터 설치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훤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무상설치 사업이 여름철 폭염에도 전기요금 걱정으로 냉방장치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비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쥬라기 월드 특별전 집객 모습. /롯데쇼핑

"와! 공룡이다"… 영화 속 장소가 현실로

롯데百 '쥬라기 월드 특별전'

온라인 쇼핑 거래가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업체들은 온라인몰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킬러 콘텐츠'를 앞세워 고객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을 소재로 한 전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세계 다섯 번째이자 아시아 최초로 '쥬라기 월드 특별전(JURASSIC WORLD THE EXHIBITION)'을 선보인 것.

지난 6월 28일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1층 특별전시관에 오픈한 '쥬라기 월드 특별전'은 미국, 호주, 프랑스, 스페인에 이어 세계 5번째로 선보이는 체험형 전시장이다.

미국 유니버설사의 영화의 스토리를 그대로 재현해 관람객이 영화 속 주인공처럼 공룡 거주지인 '이슬라 누블라(Nubla Island)'를 방문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실제로 전시장 오픈일 인 28일부터 30일까지 특별전과 롯데백화점의 실적을 살펴보면, 특별전이 하루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인 3000명의 방문객이 연일 다녀갔으며 전시와 연계된 카페와 굿즈샵의 매출 또한 매일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이러한 집객 효과는 고스란히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의 방문 객수와 매출로 이어져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13%와 16%의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롯데백화점 측은 고객들을 열광하게 하는 '킬러 컨텐츠'와 전 연령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익숙한 영화 스토리',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 시키는 '기술력'덕분에 매출 신장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수락산역에 '어울림체육센터' 만든다

서울시, 장애·비장애인 함께 이용
수영·볼링장 등 갖춰 2021년 완공

수락산 장애인체육시설 당선작 조감도. /서울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역주민과 전문체육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인 '서울 어울림체육센터'가 2021년 10월 수락산역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노원구 상계동에 어울림체육센터(이하 센터)를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센터는 연면적 1만4200㎡에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선다. 센터는 수영장과 볼링장, 생활체육시설, 장애인 전용 다목적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건축물'로 만들어진다. 장애인 전용 수영장도 마련된다. 휠체어 이용자도 안전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된다. 재활치료와 유아를 위한 전용풀도 조성된다.

볼링장은 국제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수준(32레인)으로 만들어진다. 생활체육실은 농구, 배구 외에 골볼, 보치아 등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도 즐길 수 있는 통합시설로 꾸며진다.

시는 설계공모를 진행해 '다니엘 바에 아키텍츠(자인건축사사무소 공동응모)'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은 건물 주출입구 주변 외벽을 유리로 설치해 건물 내부 로비와 외부의 광장이 단절되지 않고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전했다.

당선작 설계자에게는 기본·실시설계 우선협상권이 주어진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0년 6월께 착공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자치단체 최초' 발달장애인지원팀 신설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발달장애인 지원 업무 '전담팀'이 신설됐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국 최대 규모인 5만 여명의 도내 발달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난 2017년 7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과 내에 '발달장애인지원팀'을 지난 1일자로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된 '발달장애인지원팀'은 팀장을 포함한 총 4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된다. 도는 이달 안으로 인력배치 등 업무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도는 전국 발달장애인 20만 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만 여명(전국 최대)의 발달장애인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점과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추진 등에 따라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발달장애인 지원팀'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경기도, 20일 'e스포츠 경기장' 후보지 선정

경기도가 미래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e스포츠 육성을 위해 전용경기장을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안산, 용인, 성남, 부천 등 4개시가 최종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e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해 300석 이상 규모의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1개소를 조성할 예정으로 지난 1월부터 7월 1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지 선정 공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민 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했으며 현장심사와 서면 발표 심사를 거친 후 7월 20일까지 1개시를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2019년부터 4년간 총 134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경기도 e-스포츠 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김승열 기자